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목적 외에 작가와 용인문화원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011 포은문화제 전국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시로 그리는- 포은 정몽주
수상내역	2011 포은문화제 전국 스토리텔링 공모전 대학일반부 은상
작가	이슬비
세부분야	영화 시나리오
공모분야	시나리오
기획의도	<p>정몽주는 기울어져가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으로 우국충정의 신화가 된 인물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신화로 기억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정몽주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일본, 중국을 오가며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를 해결한 유능한 외교관이며, 백 여수의 시조를 남긴 유능한 시인이기도 하다.</p> <p>정몽주가 겪었을 인생역경과 망국의 한, 지식인의 고뇌가 처절하게 나타난 그의 시조를 통해 우리는 인간 정몽주의 내면을 볼 수 있다.</p> <p>이 시나리오를 통해 청소년과 더불어 역사에 관심을 둔 모든 이들이 국사책을 통해 보는 시대의 희생자가 아닌, 충신의 무거운 옷마저 훌훌 털어버린 인간 정몽주를 조금이나마 조명해 볼 수 있길 바란다.</p> <p>정몽주가 시은 시조를 통해 그의 고뇌와 기쁨, 우국충정까지 느끼다 보면 어느새 인간 정몽주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p>



시로 그리는-

포은 정몽주

프롤로그

대숲 / 새벽녘, 이슬비

해가 밝아오기 직전 푸른 새벽녘.
하늘에서는 이슬비가 내린다.
붉은 공복 차림을 한 초로의
한 남자(정몽주)가 대숲을 가만히 거닌다.

정몽주의 발걸음을 따라 화면 움직이고,
조용한 음악소리와 함께
정몽주의 <춘흥> 내레이션이 이어진다.

-봄비 가늘어 방울지지 않더니

풀썩, 그가 벗은 공복과 관품패가 푸른 잔디위에 떨어진다.

-밤사이 작은 소리되어 들리네

백저포 차림의 정몽주 계속 걷는다.
그가 지난 길에는 머리에 썼던 갓과 가족신,
그리고 버선을 벗어 가지런히 놓여있다.

-눈 녹아 남쪽 시냇물이 불었으니

정몽주 멈춘다.
잔디가 돋은 자신의 무덤을 천천히 쓸어내린다.
자신의 묘소를 둘러본다.

-풀썩은 얼마쯤이나 돋았을꼬.

가지런하게 앉아 <춘흥>의 마지막 글자를 쓴 정몽주,
조그맣게 자신의 이름을 쓰고 마침표를 찍는다.
그가 카메라를 응시한다.
붓을 들어 적는다.



TITLE IN

시로 그리는-
포은 정몽주

썸1. 모현 정몽주 묘소 터 / 낮

저 멀리 상여가 들어온다.
정몽주의 아내와 아들 종성, 종본이 상여를 따르고
그의 후학들이 애통해하며 뒤따른다.
그 때 한 늙은 여인(어머니 영천 이씨), 손에 붉은 배넛저고리와
‘태중훈문’ 책을 들고 그 모습 바라본다.

이씨 몽주야. 네가 정녕 단심으로 살았구나. 장하다 내 아들.

상여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씨 부인.
붉은 배넛저고리를 바람에 날려 보낸다.

그 때 종성이 들고 있던 명정이 바람에 날아간다.

종성 앗!

붉은 명정,
양지바른 풀밭으로 사뿐히 떨어진다.
그 곁에 붉은 배넛저고리가 함께 있다.

썸2. 어머니 이 씨 부인의 시

이 씨 부인의 방.
부인이 붉은 배넛저고리를 지으며 말한다.

자막 - 정몽주 어머니 이 씨

이 씨 몽주는 워낙에 영특한 아이였고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에 관한 한 타고났던 셈입니다. 그러나 무릇 인본을 아는 인간이란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이 붉은 의복처럼 항상 뜨겁고 불같은 열의로
백성과 나라를 위해야 합니다. 몽주가 그런 단심을 가진 사람이길 바랬습니다.

썸3. 몽주의 방 / 낮

소년 몽주,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맞고 있다.



인서트.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친구들

어머니 이 씨,

방문을 열고 아이들에게 엄하게 말한다.

이 씨 모두 돌아가거라. 너희는 사내대장부다.

그런 비열한 짓은 온당치 못해!

아이들, 이 씨에게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껄렁댄다.

이 씨 다시는 발걸음 하지 말거라.

방으로 돌아온 이 씨, 몽주를 몇 차례 더 때린다.

이 씨 네 잘못을 아느냐?

몽주 예. 압니다.

이 씨 무엇이나?

몽주 나쁜 벗들과 어울려 놀았기 때문입니다.

이 씨 그것이 아니다. 자리에 앉거라.

이 씨, 흰 한지를 꺼내 몽주에게 내민다.

이 씨 읽어 보아라.

몽주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 /

성낸 까마귀들이 너의 흰빛을 시샘하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이 씨 아들이

몽주 예 어머니.

이 씨 타고난 천성이 까마귀인 사람은 없다. 다만 선택할 뿐이야.

나는 네가 여러 벗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쁘다고 여기지 않는다.

몽주 하오시면?

이 씨 너희는 오늘 옆 고을에서 온 새로운 벗이라 하여

그 아이를 무시하고 함께 놀지 않았다.

몽주 그것은 앞집 영신이가!

이 씨 작은 권력이 있다 하여 그것을 두려워하였느냐?

몽주 …….

이 씨 한갓 동년배 친구에게조차 의로운 마음을 세우지 못한다면

장차 이 나라 고려의 수많은 모리배들과 한 배를 탈 수도 있겠구나!

몽주 어머니!

이 씨 힘 있는 자에게 아첨하는 것은 참으로 쉽다.



아침하여 얻는 힘과 재물들도 현혹되기 쉽다.
그런 쉬운 길을 택하라고 너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줄 아느냐?
몽주 잘못했습니다.
이 씨 권력에 휩쓸리지 마라. 장차 너는 고려의 왕을 보필하고
아래로는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나약하고
순진한 백성들을 위해야 할 몸이다. 부디 휩쓸리지 마.
몽주 예, 어머니.
이 씨 힘들 때마다 이 글을 보고 네 맘을 살피도록 해라.
내가 너에게 어찌하여 붉은 색 옷을 입히는지 잊지 말아라.

썸4. 외가 하녀를 위한 시

뒷마루에 걸터앉은 중년의 여인 보인다.

자막 - 정몽주의 외가 하녀

하녀 몽주 도련님은 온정이 깊고 의로운 성정을 지니셨어요.
사실 부끄럽지만 전 글을 알지 못해요.

인서트

소년 몽주에게 붓과 한지를 내미는 하녀.

하녀 제 남편이 아주 먼 곳으로 일을 떠나 있었는데,
기다리는 마음을 전할 길이 전혀 없어 막막했습니다.

인서트

하녀 기다린다고, 빨리 올 수 있느냐고 좀 써주세요 도련님.

종이를 바닥에 두고 붓을 든 소년 몽주.
글을 써 내려간다.
화면에 그가 쓴 글귀가 보인다.

구름은 모였다 흩어지고
달은 찼다 기울지만
아내의 마음은 변하지 않노라
세상에 병이 많으니 이 상사병이라
-상사곡, 정몽주



썸5. 정자

자연 정자에 앉아 글을 읽는 소년 정몽주의 뒷모습,
화면 전환하면 정자에서 청년 정몽주와 정도전 등
동문수학하는 벗들이 공부하고
그 앞엔 스승 이색이 가르치고 있다.

이색 너희는 장차 입신양명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할 학자이자 정치가들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백성들을 이롭게 기쁘게 할 것이냐? 삼봉 정도전 말해보아라.

정도전 부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인재를 등용하고 능력 있는 신하들이 백성들을 보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이색 좋다. 정도전의 정치관 옳다. 그 다음 정몽주 말해보아라.

정몽주 점진적으로 계획해 둔 것이 있었습니다. 제 1계획은 지방향교를 확대하고
공창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주자 교육을 통해 인간의 의식을 깨치고, 또한 입을
거리 먹을거리에서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을 국가로 넓혀나
가면 이로운 정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색 정몽주의 생각 또한 옳다.

정도전, 정몽주를 비롯한 학생들
다들 열심히 수업을 듣는다.

썸6. 스승 이색과 나눈 시

정자.

이색이 앉아 차를 마시며 말한다.

이색 포은 정몽주는 학문에서 어느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가장 뛰어났으며, 몽주의 논설
중 어떤 말이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몽주는 제가 가장 아끼는 제자
이자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하는 벗이었습니다. 그의 학식과 곧은 정신은 기울어져가
는 고려에 한 줄기 희망을 걸게 하는 투지임을 전 믿었습니다. 저의 제자에게 말입
니다.

썸7. 백암사 / 낮

청년 정몽주와 스승 이색, 청수스님이 함께
복원한 백암사 쌍계루를 보고 있다.

이색 청수 스님께서 고생 많으셨지요.

스님 이 모두 왕께서 살피주신 덕분입니다.

정몽주 왕께서 이 다시 선 누각이 더는 물줄기 풍파 없이
굳건하게 백암사를 지켜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은혜가 하해와 같습니다. 오늘 두 문인께서 전하의 크신 은혜를
전해주시러 귀한 발걸음 하셨으니 또한 기쁩니다.
정몽주 아름다운 백암사 정취를 맛보니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님 그런데 또 한 가지 큰 기쁨을 얻을까 하여
이 못난 노승이 욕심을 자꾸만 부리게 됩니다.
정몽주 예?
이색 스님, 기탄없이 말씀해 보시지요.
스님 이 누각에 이름을 지어주시겠습니까?
명망 있는 문장가를 모시고 그냥 보내드리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색 누를 끼치지 않는다면 미천한 재주로 공양하겠습니다.

(cut to;)

먹과 종이가 나온다.
바람이 불고 이색과 정몽주의 두루마기가 훑날린다.
백암산의 두 갈래 물줄기가 누각 앞에서 만나 합일하는 광경이다.
이색, 단정하게 앉아 붓을 든다.
‘쌍계루(雙溪樓)’라 적는다.

이색 백암산 물줄기가 두 갈래로 흐르다 만나니
부처께서 남녀노소 불자들을 불심으로 조화롭게 이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스님 쌍계루. 참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이색 포은.
정몽주 예, 스승님.
이색 포은 자네는 무엇으로 공양을 하겠는가?
정몽주 제가 어찌 스승님과 나란히.
이색 이 젊은 문인에게는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청수스님?
스님 이름이 생겼으니, 기념으로 시판 하나 걸면 아주 조화롭겠습니다.
정몽주 시를 말입니까?
스님 두 물길이 만나고 부처님과 불자가 만나듯 마음 나눈
두 문인의 글귀가 물 흐르듯 만나 완성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망설이던 청년 정몽주,
다시금 쌍계루와 주변 정취를 본다.
해질녘 황혼의 풍광이 아름답다.
단정하게 자리에 앉는다.
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다.

정몽주 내레이션 및 자막

지금 시를 써 달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니



벗을 잡고 생각에 잠겨도 능히 읊지 못해 재주 없음이 부끄럽구나.
청수스님이 누각을 세우니 이름이 더욱 중후하고
목은 선생이 기문을 지으니 그 가치가 도리어 빛나도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이 붉고
달빛이 흘러 돌아 가을 물이 맑구나.
오랫동안 인간세상에서 시달렸는데
어느 날 옷을 떨치고 그대와 함께 올라보리.

이색이 정몽주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정몽주, 이색과 마주보며 웃는다.

이색 좋구나. 너의 시는, 참 옳다.

그 때 뒤에서 씩씩한 목소리 들린다.

정도전 풍광이 참으로 좋습니다.

고개를 돌려 뒤에 선 정도전을 바라보는 정몽주의 얼굴이
환하게 웃는다.

정몽주 삼봉 왔는가!

썸8. 동심우 정도전

정도전, 조선의 관복을 하고 창밖을 바라본다.
밤바람이 살랑살랑 실내로 들어온다.
그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을 잇는다.

자막 - 정도전

정도전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이 각기 학업을 연마하여 사람마다 학문의 해석과 뜻에
 이견이 있었는데, 포은 정몽주 선생은 학문의 물음에 따라 명확히 설명하되
 털끝만큼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많은 수학 선배님들이 계셨지만
 저는 정몽주 선생을 가장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썸9. 술집 / 밤

거나하게 술이 취한 두 사람.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도전 형님, 나는 서얼입니다.



정몽주 그건 자네의 인품과 학식에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
정도전 입신양명엔 문제가 되지요. 신분제 철폐다 뭐다 하지만, 결국은 줄타깁니다.
정몽주 우리가 함께 조금씩 노력하다보면 더 나은 세상이 올 거야.
정도전 세상엔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몽주 그건 나도 동감하는 바야. 고려는 지금 풍전등화야. 인재가 필요해.
정도전 어린 왕이 정치를 압니까? 정치는 혈족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몽주 필요하다면, 왕도 바꿀 수 있겠지.
정도전 깨진 등에 기름만 좋은 걸로 부어댄다고 불길이 살아납니까?
정몽주 삼봉, 자네.
정도전 포은형님. 마음에 울분과 분노가 쌓여 학식으로도
내 마음의 갈망을 축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을 배를 주리고 온갖 환난과 왜구들의
도적질과 수탈에 신음합니다.
나는, 나는 그 배고픔이 어떤 것인가 너무 잘 압니다.
정몽주 자네와 난
정도전 동심우(同心友)지요.
정몽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다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정도전 자. (거울의 반쪽을 내밀며) 한 점 숨김없고
부끄럼 없는 마음, 언제까지고 함께합시다, 형님.

썸10. 밤거리

거나하게 취한 정몽주와 정도전이 어깨동무를 하고
밤거리를 걸어간다.
여느 청년들처럼 낄낄대고 시끄럽게 떠든다.

정도전 포은형님, 실컷 술 얻어먹은 김에
비싼 시도 한 수 얻어들어야겠소.
정몽주 그래? 좋다! 삼봉선생에게 바치나이다.

나그네 길 봄바람에 미친 듯 흥이 일어
미려한 풍광 볼 때마다 술잔 기울였네.
집에 돌아왔으니 돈 다 썼다고 의심하지 마오.
그 덕에 새로 지은 시가 비단주머니에 가득하다오.
-음주 / 정몽주

정도전 시가 참 옳다!

여전히 어깨동무를 한 채 귀가하는 두 사람.
그들의 웃음소리가 유쾌하다.



썸11. 동심우 정도전

자막 - 정도전

정도전, 조선의 관복을 하고 의자에 앉아있다.
턱을 괴고 골몰하던 그가 이윽고 입을 연다.

정도전 그 땀 우리의 이견을 단지 성정의 다름으로 여겼어요.
정말로, 정말로 언제까지고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고
물론 지금도 꿈에서라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썸 12. 나루터 / 낮

나루터에 정몽주와 그의 식속들이 서 있다.
하인들은 배에 짐을 꾸리고,
배는 출항 직전이다.

아내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정몽주 종본과 종성이를 부탁하오.
종성 꼭 가셔야 겠습니까?
정몽주 종성아, 어명을 거스를 순 없지 않느냐.
어머님과 종본이를 잘 보살피거라.
아내 명나라 그 먼 곳까지 벌써 몇 번째 입니까?
사지 전장으로 가시는 듯하여 한시도 시름을 거둘 날이 없습니다.
정몽주 나라를 위한 일이오.

지역 관리들이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
쌀 한 톨, 병아리까지 가져가는 모습이다.
농민과 아녀자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 바닥에
퍼질러 앉아 통곡하고 있다.

정몽주 지금은 수탈이지만 그 다음은 전쟁이오.
내 미혹한 학식과 언지가 고려를 도울 수 있다면
그 또한 우국충정 아니겠소. 아직은, 희망이 있소.

정몽주, 웃으며 배에 올라탄다.
멀어지는 식구들.
여전히 울부짖는 백성들의 모습도 멀어진다.
그 모습 결연하게 바라본다.

강가의 모습,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정몽주 의연하게 서 있다.

썸13. 강가

정몽주가 탄 배가 끝없이 흐른다.
눈과 비, 단풍과 새싹, 꽃이 변하며 계절도 흐른다.
여전히 정몽주는 의연하게 서 있다.
그의 뒷모습을 비추다 어느덧 정몽주가 화면을 바라본다.
어느 덧 초로가 된 정몽주가 서 있다.
그의 곁에는 많은 고려 포로들이 함께 서 있고,
그가 탄 배 뒤에는 열 척의 배에 또한 포로들이 있다.

뱃사공 고려가 머지않았습니다.
정몽주 다들 귀향할 채비를 하시지요.
포로1 모두 포은 선생님의 은혜 덕택입니다.
포로2 다시는 고향 땅 못 밟을 줄 알았구먼요.
뱃사공 왜놈들이 다시는 노략질 않겠다니 물질하는 소인들 마음이 놓입니다요.

정몽주, 환하게 웃는다.

(cut to;)

고려가 가까워 온다.
산천은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다.

정몽주 (웃으며) 희망이 있다하지 않았느냐.

썸 14. 나루터 / 저녁노을

환히 웃으며 배에서 내리던 정몽주의 표정이 굳는다.
그의 귓가에 다시금 민초의 울음소리가 꽃힌다.

인서트.
자욱한 흙먼지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울고 있는 민초와 짐을 싸 고향을 떠나는 행렬 보인다.
교자를 타고 거드름을 피우는 간신배들과
간신배들이 한 손으로 들어 올린 교자 위엔
젊은 왕이 화려하게 치장한 채 뒗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다.

소년을 안고 통곡하는 한 아녀자의 모습을 보이고



-떠난 지 몇 년이나 되었을까 소식이 없네
전쟁터의 생사를 누가 알리오
오늘 아침 당신에게 겨울옷 부치러 간 이
당신 보낼 때 뺏속에 있던 아이라오
/전쟁나간 병사의 아내/정몽주

정도전 포은형님!

소리 나는 곳을 바라보는 정몽주.
그 곳에 군사를 이끌고 말을 탄 정도전과 이성계 보인다.

정몽주 삼봉!
정도전 남은 말이 한 필 있는데 형님 생각이 났습니다.
정몽주 풍전등화에 잘려나간 심지를 새로 세우면 어떻겠는가?
이성계 일단은, 좋지요. 자.

정몽주에게 손을 내미는 이성계.
이성계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정몽주,
이성계의 손을 잡고 말에 올라탄다.

썸 15. 이성계의 변

곤룡포를 입고 왕좌에 앉은 이성계.

이성계 정몽주는 학식과 명망과 정치 외교력을 두루 갖췄다.
우국충정의 온순한 눈 속에 개혁의 의지가 빛날 때
꼭 함께하고 말 거라고 생각했지.

썸 16. 만경대 / 밤

분노에 찬 정몽주.
만경대에서 내려다보이는 고려의 모습을 본다.
하늘엔 보름달이 밝다.

-천길 바위머리 돌길로 돌고 돌아
홀로이 다다르니 가슴 메는 근심이어

인서트 - 오목대

이성계와 정도전, 그의 무리들과 함께 연회를 베풀고 있다.
그 자리에 정몽주도 함께이다.



-청산에 깊이 잠겨 맹세하던 부여국은
누른 잎은 어지러이 백제성에 쌓였도다.

플래시 백

이성계 내 노래 한 곡 하리다.

일어서는 이성계

이성계 한 나라 고조의 노래요. 오늘따라 무척이나 마음에 와 닿는구려.
큰 바람 일고 구름은 높게 날아가네
위풍을 해내에 떨치며 고향에 돌아왔네
내 어찌 웅맹한 인재를 얻어 사방을 지키지 않을 소냐.

박수치는 정도전

좌중을 압도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이성계.

정도전 풍전등화에 향기로운 춘풍이 거세니 종국에는 남아빠진 등이
제 몸을 이기지 못하고 깨어지는 법이지요.

-구월의 소슬바람 나그네의 시름 질고
백년기상 호탕함은 서생을 그르쳤네

만경대의 달이 기울어 가는 모습 보인다.

-하늘에 해는 지고 뜬구름 덧없이 뒤섞이는데
하염없이 고개 들어 송도만 바라본다.

발길을 돌려 터벅터벅 걸어가는 정몽주.

플래시백.

정도전이 자신의 옆 자리 정몽주의 떠나간 자리를 본다.
그 곳엔 일전에 자신과 나누었던 거울이 주인을 잃고
버려져 있다.

그 모습 바라보는 이성계와 정도전.
그리고 혈기 왕성한 아들 방원.



썸 17. 사냥터 / 낮

말의 놀라는 소리와 함께 화면 밝아지면
낙마하여 크게 다치는 이성계.

이방원 아버지!

썸 18. 정몽주의 방

언관 두 사람과 마주앉은 정몽주

정몽주 언관들을 부른 연유는 반역의 무리로부터
고려사직을 지키기 위함ियो.

붓과 종이를 내오는 하인.

정몽주 이성계와 정도전을 탄핵하시오.

썸19. 정몽주의 방 / 밤

정몽주,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의 두 아들 종성과 종본 정몽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종성 이번에도, 꼭 가셔야겠습니까?
정몽주 고려를 위한 일이다.
종성 이성계 부자는 이제 아버지를 척살할 수도 있습니다.

정몽주, 마지막으로 붉은 두루마기를 입는다.

정몽주 신하된 자는 오로지 단심이다. 가야만 한다.

종성과 종본 눈물을 흘린다.

정몽주 종성아, 종본아.

썸20. 종성과 종본

종성과 종본 의자에 앉아 카메라를 응시한다.

자막 - 아들 종성, 종본



종성 어찌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시더군요.

종본 아비로 인해 출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괴로워하는 두 아들.

조용히 말을 잇는다.

종성 가지 마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 가시는 걸음을 막지 못한 게 한이 될 뿐입니다.

썸21. 이성계의 집 / 밤

정몽주, 이성계의 집 앞에 선다.

대문이 열리고 이방원이 나와 정몽주에게 인사한다.

이방원 잘 오셨습니다!

정몽주 아버님의 병세는 좀 어떠신가?

이방원이 정몽주를 안으로 모신다.

이방원 차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정몽주 그렇군.

이방원 대감, 저와 술 한 잔 나눠 주시겠습니까?

썸22. 이방원

곤룡포 차림에 아기를 안고 있는 이방원.

아기는 한글 모양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자막 - 이방원

이방원 새 나라엔 충신이 필요하고 충신은 곧 정몽주였지.

썸23. 이방원의 방

술상이 차려져 있고 이방원과 정몽주

마주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이방원 바깥바람이 참니다. 대감 건강을 돌보셔야 합니다.

정몽주 이제 머지않아 봄이 올 겁니다. 아직은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니다.



술 한 잔 마신다.

이방원 오늘 대감을 뵈오니 기쁜 맘입니다.

제가 시 한 수 읊어도 괜찮겠습니까?

정몽주 좋지요.

이방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령 침이 얹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얹혀서 백 년까지 누리리라

고요한 방. 정몽주가 미소 지으며 말한다.

정몽주 나 또한 시로 화답하겠소.

이방원 좋습니다.

정몽주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방 안에는 정적이 흐른다.

서로를 응시하는 두 사람의 눈이 매섭다.

이방원 연어는 아래로 흐르는 물의 이치를 거스르다 힘에 겨워 죽습니다.

정몽주 물을 거스르는 것은 태고에 연어란 놈이 혈속에 각인한

본능입니다. 그놈에겐 그것이 당연한 이치이지요.

이방원 태어난 자리를 지키려다 사후에도 자기 자식에게 먹혀 가리가리 찢기지요.

정몽주 제 몸을 내 준 최초의 어미 연어 피가 살이

지금도 새끼의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치란, 바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술을 마시는 정몽주.

정몽주 웅숭한 대접 감사하오.

밤이 늦었으니 이만 일어서보겠소이다.

썸24. 이방원의 변

이방원 천하의 귀한 옥돌이나마 새 집 문간에 고집스레 버티고 있다면

마땅히 도끼로 쪼개 날려야 하네. 두고두고 후회하더라도 말이야.

썸25. 선죽교 / 밤

거나하게 취해 술집에서 나오는 정몽주.

밤길에 말을 탄 채 터벅터벅 가는 뒷모습 보인다.

그를 은밀히 따라가는 조영규와 고려. (인물 이름 자막)



조영규, 달려 나가 정몽주의 등에 검을 휘두르지만
정몽주 재빠르게 피한다.

정몽주 권력에 영합하는 개가 바로 너구나!
조영규 어찌 천명을 거스르리오!

정몽주, 말에 채찍질 하여 달아난다.
조영규, 사력을 다해 달려 정몽주를 따라잡는다.

툭, 말머리가 떨어진다. 피가 낭자하다.
정몽주 말에서 굴러 떨어진다.

정몽주, 사력을 다해 선죽교를 지나려 한다.
타악! 정몽주의 피가 선죽교에 흩뿌려진다.
정몽주 쓰러지면 그 뒤에 철퇴로 정몽주를 죽인 고려 모습 보인다.

황급히 멀어지는 고려와 조영규의 발소리 들린다.
눈도 감지 못하고 죽은 정몽주의 시신.
낭자한 피가 선죽교 아래 물가로 흘러가 붉게 물든다.

썸 26. '우제 - 우연히 짓다' 시퀀스

음악소리 가만히 들려오면, 고려의 산천 풍경 보인다.
산천풍경 보이는 중 가만히 떠오르는 '우제 - 우연히 짓다' 글씨.

정몽주 내레이션
-오늘이 무슨 날이고 하니
봄바람이 나그네 옷을 날리는 구나.

필름 프레임이 돌듯 그의 일생이 돌이켜져 화면에 보인다.

정몽주의 어머니의 모습과 어린 시절,
스승 이색과 함께 거닐고 벼들과 동문수학하던 청년시절 교차된다.

-사람은 천리에 놀아 멀어졌고, 기러기는 고국의 산을 지나가는 구나.

정몽주와 함께 웃음 짓던 정몽주,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
고통에 울부짖는 백성들, 왜에서 데려온 포로들 등 사람들의 모습 보인다.

-나라에 바친 한 조각 마음 괴로운데
시절을 느끼니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린다.



단정하게 앉은 1썸 백저포 차림의 정몽주,
그가 선죽교에 누운 자신의 시체 두루마기에 시를 적어 내려간다.

-누에 올라 머리를 돌리지 말라, 꽃다운 풀이 한참 우거지고 우거졌도다.

선죽교에 누운 정몽주의 모습 위에서 지켜보면
바람에 흩날리는 두루마기 가득 시가 적혀있다.
정몽주, 한 줄기 눈물을 흘린다.
선죽교의 비정하고 쓸쓸한 풍경 보인다.
백저포 차림의 정몽주, 쓸쓸히 걸어간다.

썸27. 탕욕

데워진 목욕물로 인해 수증기가 안개와도 같다.
단정하게 앉은 백저포 차림의 정몽주,
건을 벗고 옷들을 훌훌 벗는다.

몸을 씻는 정몽주.

-비 내려 모두가 진흙탕 세상
신나게 돌아다녀 땀에 자주 젖는다.

욕탕 밖에는 비가 잦아들어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자연의 모습이 싱그럽다.

-기수에 목욕하고 저무는 몸 생각
탕명의 '나날이 새롭다'를 암송한다.

몸을 닦아내는 정몽주

-물이 있어 성한 기운 좋고 흙먼지 씻어내니 맑고도 깨끗하다.

새롭게 준비된 붉은 옷과 갓, 신발을 차례로 신는 정몽주.

-문득 정신이 맑아짐을 깨닫고 바람을 맞으며 망건을 고쳐본다.

욕탕 문을 열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는 정몽주.

썸28. 모현 정몽주 묘소 터 / 낮

1썸 붉은 명정과 배넛저고리를 좁는 정몽주.



장소를 탐색이라도 하듯 천천히 훑어본다.

알맞은 곳에 자리를 잡고 신발과 갓을 가지런히 벗는 정몽주.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편안한 자세로 눕는다. 잠을 청한다.
서서히 어두웠다 밝아지면
그 곳에 정몽주 무덤 있다.

천천히 암전.

자막 - 시로 그리는
포은 정몽주

fin.



시로 그리는-

포은 정몽주

주제

시로 인간 정몽주의 생애를 그리다!

형태

영화 시나리오

등장인물

정몽주(소년, 청년, 장년)

정몽주 어머니

정도전

이색

이성계

이방원

정몽주 아내

정몽주 아들 종성, 종본

그 외

내용

정몽주는 기울어져가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으로 우국충정의 신화가 된 인물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신화로 기억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정몽주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일본, 중국을 오가며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를 해결한 유능한 외교관이며, 백 여 수의 시조를 남긴 유능한 시인이기도 하다.

정몽주가 겪었을 인생역경과 망국의 한, 지식인의 고뇌가 처절하게 나타난 그의 시조를 통해 우리는 인간 정몽주의 내면을 볼 수 있다.

이 시나리오를 통해 청소년과 더불어 역사에 관심을 둔 모든 이들이 국사책을 통해 보는 시대의 희생자가 아닌, 충신의 무거운 옷마저 훌훌 털어버린 인간 정몽주를 조금이나마 조명해 볼 수 있길 바란다.

이 시나리오는 역사적 순서와 시조를 지은 순차대로 구성하지 않고, 그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고 조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정몽주가 시은 시조를 통해 그의 고뇌와 기쁨, 우국충정까지 느끼다 보면 어느새 인간 정몽주가 두뼉두뼉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